

기노모토주쿠 역참 마을 옛 도매상 터

그리스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높은 건물을 보고 있노라면 겁을 든 사무라이나 막부 관리의 모습은 좀처럼 떠올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1603~1867)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 들러 말을 갈아타거나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도매상이 들어선 전통적인 목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35년에 서구식 은행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기노모토 교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연중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노모토 가축 시장

훗코쿠 가도의 이 구역에서는 1년에 두 번 소와 말을 사고파는 가축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무로마치 시대(1392~1573)를 시작으로 20세기 초까지 계속 열렸다고 합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 희망자가 판매자의 소매에 손을 넣어 판매자의 특정 손가락을 잡거나 구부려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